

선거 출마 위해 불쌍사나운 ‘밥그릇 싸움’

시도 의원 예결위원 쟁탈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올해 시·도 제1회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양당 간, 의원 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 벌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지난해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양당 체제로 재편된 광주시의회가 집행부 살림살이 심사권을 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이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당 의원들의 과반 참여로 예결특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숫자싸움’이 치열하게

“지역구 예산 확보 절호의 기회” 민주-국민의당 갈등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위한 추경안 심의 차질 우려

진행되면서 아예 ‘전체 의원의 80% 가량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자’는 국내 지방의정 사상 유례없는 제안까지 나와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의석수와 위원수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더 많은 의원이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6일 오전에 가진 협의에서 현재 9명인 예결특위위원수를 11명으로 늘리고 민주당 몫으로 6명으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전반기 예결특위의 경우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6명이나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당에서 5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안에 대해 민주당이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의 교섭단체 항목을 내세우며 이른바 법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자, 26일 협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수를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17명으로 늘

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현재 22명인 광주시의회 의원 가운데 80%가 예결특위 위원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협의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나 두 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질 줄까지 합의할 것으로 보여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도의회 의원들도 예결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결위원 선임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제9조의2·예결특위) 예결특위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 중 2명,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1명, 의장이 나머지 위원을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은 상임위(12명)·의장 추천(6명)·교섭단체(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도의회 원구성이 일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바뀐데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예산 확보 등을 위한 의원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면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 위원 선임 문제는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여해온 도의장이 사실상 좌지우지해왔는데, 이번엔 이 같은 관례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부 도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6개 상임위 중 일부 상임위는 소속 상임위원간에 서로 예결특위 자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임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물밑에선 의원들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얘기다.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의원들간, 당대당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도의회에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모두 4명으로, 더불어민주당(1명)과 국민의당(3명) 소속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의원을 사이에선 “과거 관례를 따라야 한다”, “의원을 개인에 맞게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권일기자·이종행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신임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금 우리 경제 회복시킬 골든타임

추경 조기 집행땀 다시 3%대 성장”

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아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정부조직정착을 펼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에 국회 협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

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기 부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며 “다른 부처 일이 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괜히 나설 필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관 후보자 프로필

검찰·사법 개혁 의지 확고…사시 안거친 법학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애초 지명됐던 안경환 전 후보자가 예상 밖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자칫 약화할 수 있는 개혁의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적임자로 여겨진다.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정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

(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 장관이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원리에 능통하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라며 “경실련 활동을 한 것도 그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이면서도 자기 소신은 뚜렷한 원칙주의자로도 평가된다.

▲무안(65)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경실련 공동대표

인권·시민운동 활동 적극적…생명윤리 법철학 전문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장에 임명된 박은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시민운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법학자다.

1990년대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비롯해 공동대표를 지내고,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인간개체복제금지 협약상안을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정부대표, 아시아생명윤리학회(ABA) 부회장, 서울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는 등 생명윤리 분야와 법철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2011년~2012년)에 이어 국민권익위의 두 번째 차장 위원장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등을 맡아서 했다.

▲경북 안동(여·65) ▲이화여대 법학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학과 교수

문 대통령 오늘 출국…30일 첫 한·미 정상회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등 3박5일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장진호 전투는 6·25 당시 한·미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해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29일 오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미국 정계 핵심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김정은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만찬을 가진 예정이다.

이어 30일 오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기자회견에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펜스 부통령과 별도 오찬을 갖고 백악관 공식일정을 마무리한 뒤 당일 저녁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7월1일) 동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D.C를 출발해 다음달 2일 저녁 늦게 귀국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쌍암동 6층 상가건물 대421㎡ 매22억원(보1.6억 월1,3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신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산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신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마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료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복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탐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의 노하우 **올레탐공인중개사** 가성후·가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쇼핑몰 MD, 웹디자이너 모집

농협회사법인㈜조이야드와 함께 온라인 식품산업을 선도할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합니다.

당사는 2001년부터 17년간 종합쇼핑몰, 홈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 농수축식품부문 전자상거래 산업을 선도해 오고있는 온라인 식품종합판매업체입니다.

모집부문

구 분	인원	부 문	주요업무
식품MD	0명	신입 및 경력	상품관리 및 기획, 상품개발
웹디자이너	0명	경력	웹디자인, 콘텐츠제작
상품포장	0명	무관	농산물 택배포장

전형방법

1. 1차 : 서류심사

2. 2차 : 면접(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웹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 첨부

3. 접수방법 : 이메일(shop@joyard.co.kr) 접수

4. 접수기간 : 2017년 6/26일~7/7일까지

기타사항

1. 문 의 처 : 062-523-2530 / 010-7713-2530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0-34 (양산동 401-18) 본촌신단 내

3. 근무시간 : 월~금, 08:30~18:30

농협회사법인 (주)조이야드

http://www.purgen.co.kr